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로 알려주세요.

종교



타인과 나불어 사는 지혜(눅 14:07-11)



추수감사 특별새벽부흥회 은혜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는 오는 11월 14 일(월)부터 19일(토)까지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한 역사적 부흥 운동' 이란 주제로 추수감사 특별 새벽부흥회를 개최한다.

시간은 월~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30분이며 토요일은 오전 6시다.

날짜별 강사는 월요일 한기홍 목사, 화요일 호성기 목사(펠리안디옥교회), 수요일 이성철 목사(달라스연합감리교회), 목요일 하연행 목사(뉴욕 프라미스교회), 금요일 이은상 목사(달라스 세미한교회), 토요일 김춘근 교수(자마) 등이다.

은혜교회 측은 "이번 새벽부흥회를 통해 역사적으로 성경을 가장 사랑하며, 성경과 신앙을 바탕으로 가장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 청교도와 같은 굳은 신앙의 토대를 쌓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새벽부흥회는 www.gracemi.com에서 동시 중계한다.

▶ 문의: (714) 446-6200

유용석 사회봉사상 공모 LA기윤실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박문규, LA 기윤실)이 '제11회 LA 기윤실 유용석 사회봉사상' 후보를 공모한다.

박문규 대표는 "평생 사회봉사를 위해 헌신하신 고 유용석 장로님을 기념하고 섬김의 삶을 사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윤리적 봉사의 모습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제11회 LA 기윤실 유용석 사회봉사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일에 적극적인 단체나 개인이며, 신청 기한은 11월 30일(수)이다. 수상자 발표는 12월 10일(토), 수상 날짜는 12월 17일(토)이다. 수상자에게는 수상증서와 상금을 수여한다.

▶ 문의: (213) 387-1207

email4lacem@gmail.com

성경에는 잔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잔치의 이야기가 많은 것은 인간 삶에 잔치가 많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은 잔치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 까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축하하는 행사는 바로 잔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 잔치를 바라보는 자리요 천국 잔치를 춘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천국 잔치에 청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설명하려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직분도 있고 말석과 같은 직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청합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모든 구조가 높은 데를 향하여 있습니다.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고 노력하는 모든 이면에는 조금 더 높은 자리를 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책에 따라 대접을 받습니다. 직책에 의해서 그 사람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 직책의 정점에 섰던 사람은 다시 낮은 자리에서 일하며 봉사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폐락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돈은 위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힘을 가지고



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은 위치를 앞질려 갈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가르침은 자신이 앉은 자리가 자신의 최종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가 마치 영원한 자리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진짜 자리를 배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자리보다 주인이 자리를 배정할 때에 낮은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고 자신이 앉았던 자리보다 주인이 높은 자리에 배정 받게 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에서 앉은 자리는 상급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것을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한다면 인생은 하나님의 연극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극이나 드라마에는 배역이 있습니다. 배역은 연극 속에서 그 사람의 자리입니다. 임금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인 노릇을 하는 사

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인공은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 상에서 지위가 주인공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살이에서 자기 배역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자리 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총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위치에 따라서 댓가가 지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에게 지불하시는 댓가는 분명히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맡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입니다.

교회는 말석에 앉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높은 자리를 생각한다면 그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고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석에 앉아 있으면 청한 자가 와서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게 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리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가 자리를 낮추기 위한 흔적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병우 목사-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1445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5에 있습니다)

1	4		2				9
		3			6	5	
5			3	7		1	
					7	4	8
3		4		6			
			9	4			3
				5	8	6	7
6	5				3	4	
		8	1				3